

# 선수·감독·구단 '3박자'...최강 호랑이 군단 만들었다

## KIA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

'호랑이 군단'이 2024시즌 우승팀이 됐다. 선수·감독·구단 '3박자'가 만든 놀라운 결과다. KIA는 지난 17일 마침내 정규시즌 우승을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트렸다. 잠시 LG에 1위를 내준 적은 있지만 KIA는 시즌 내내 선두자리를 지키면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팀이 됐다.

우리의 순간은 많았다. 마운드 부상이 이어지면서 올 시즌을 시작했던 선발진에서 양현종 홀로 남았다. 마무리 정해영도 어깨 통증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타석에서도 부상은 키워드였다. 베테랑 최형우가 지난 시즌 막판 세골 분쇄 골절을 당했었고 나성범, 박찬호, 김도영 등도 스톱브리그에 재합의 시간을 보냈다.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었다. 심재학 단장이 새로 팀에 합류한 뒤 이범호 감독도 일찍 지휘봉을 들었다. 초보 단장과 감독 조합에도 우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1위였다. 시즌 종료까지 7경기를 남겨둔 KIA는 2위 삼성을 8경기 차로 밀어낸 상황에서 우승을 확정했다. 부상 악재가 선수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선발진이 잇달아 부상으로 빠졌지만 황동하와 김도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시즌 중반 선발이라는 중임을 맡은 이들은 착실하게 마운드를 지키면서 우승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해영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필승조 장현식·전상현이 힘을 냈다. 2년 차 좌투구도 씩씩한 피칭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

베테랑 최형우는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결정적인 순간 노련함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사령탑의 믿음 속에 김도영도 날개를 펼치면서 '신해결사'가 됐다. 기록 행진을 이어간 김도영은 관중석을 뜨겁게 달구면서 성적·흥행에서 수훈선수가 됐다.

고향팀으로 돌아온 서건창의 앞잡배기 활약 속 한준수는 뜬금없이 안방 마네킹으로 성장하면서 실 틀 없는 타선을 만들어냈다. 내야의 사령관으로 자리한 박찬호와 슈퍼 백업이 된 홍종표도 눈에 띄었다. 이우성은 1루 변신으로 내·외야의 옵션을 넓혀주었다.

다른 이들의 위기는 기다리는 자들의 기회가 됐고,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던 선수들은 '가을 잔치'를 위해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범호 감독의 '인내'는 위기의 KIA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부상 위기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범호 감독은 서두르지 않았다. 부상 선수들

부상 악재가 선수들 강하게 해 마운드 줄부상에 신인들 활약 베테랑 최형우 부상

김도영 '신해결사' 역할 이범호 감독 믿음의 야구

타이거즈 안정적으로 이끌어 현장 중심 구단 움직임 돋보여

의 차분한 복귀를 강조하면서, 선수들 성향에 맞게 기회를 부여하면서 기다렸다.

스프링 캠프 중반 급히 사령탑에 올랐던 만큼 스스로도 기다렸다. 초반에는 신중하게 선수들을 파악하고, 상대팀과 감독도 분석했다.

이범호 감독은 "성급하게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선수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내 스스로도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초반에는 작전도 안 냈다"며 물리적으로 두드러가면서 결승선을 준비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동료와 코치가 아닌 감독으로 선수들을 세밀하게 지켜본 그는 또 맞춤형으로 투입하면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현장 중심'의 구단의 발 빠른 움직임도 우승 질주를 이끌었다.

'마운드 왕조' 재건을 위해 투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KIA는 미국 드라이드 라인과 트레이드 에슬레틱에 유망주들을 파견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단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인 KIA는 활동하로 선발 공백을 때우고, 김기훈의 막판 활약으로 우승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KIA는 이미 원정 '1인 1실' 제도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도 빨랐다.

선발진의 부상 위기는 있었지만 구단은 발 빠른 대응을 마련해 빈틈을 최소화했다. 제임스 네일이 타구에 맞아 턱 관절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막판 순위 싸움에 큰 변수가 발생했지만 KIA는 바로 대체 외국인 선수 에릭 스타우트를 영입했다. 네일 부상 후 스타우트가 첫 등판에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일이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이룬 KIA는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쥐고 'V12'를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한가위 대보름달 아래서 '샴페인 샤워'로 정규리그 1위 획득을 자축했다. KIA 선수단은 지난 17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경기 후 한국시리즈 직행 확정 세리머니를 한 뒤 곧바로 한강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세빛섬 마리나파크로 이동해 정규리그 우승 축하회를 열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이후 KN-23 계열 개량형 추정 고중량 탄두 추가 시험 가능성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은 2발을 발사했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시험발사였다고 밝혔다. 4.5t짜리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이었다는 주장으로, 당시 두 발 중 한 발은 600여km를 비행했고 다른 한 발은 120여km만 날다가 추락해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두 발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동북쪽으로 날아간 탓에 지구 곡률에 의해 최종 탄착 지점 포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 지점인 평남 개천에서 약 400km 거리의 동해상에는 '피도'라는 북한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북한이 이 섬을 겨냥해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당시 6연장 방사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KN-23과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응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숙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